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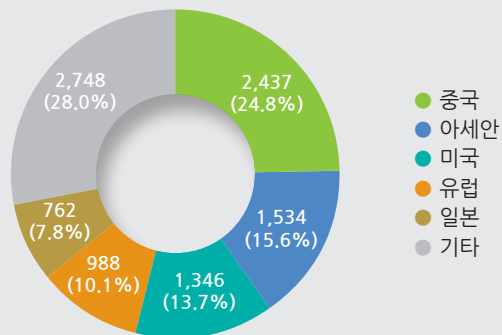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헬스케어 시장 및 의료기기 시장 규모

김지현 대표 비티인사이트(B.T.Insight)
이강수 부사장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 동남아시아 시장

동남아시아¹⁾는 한국과의 경제 및 인적교류에서 전통적인 파트너국들에 필적하는 실질적 협력이 이뤄지는 경제권이며, 중국을 넘어선 시장 다변화 전략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²⁾ 2019년 기준 한국과의 무역액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534억 달러 (전체의 15.6%)로 중국 (2,437억 달러, 24.8%)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미국 (1,346억 달러, 13.7%)과 유럽 (988억 달러, 10.1%), 일본 (762억 달러, 7.8%)을 앞선다.³⁾

[그림 1] 2019년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단위: 억 달러)



출처: 한-아세안센터(2020)

1) 동남아시아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혼용되고 있음.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 간 국제 경제 공동대응을 위해 창설된 공동체임. 5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동티모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회원이며 동티모르가 가입을 추진 중.
2) 이재현(2018)
3) 한-아세안센터(2020)
4) 한-아세안센터(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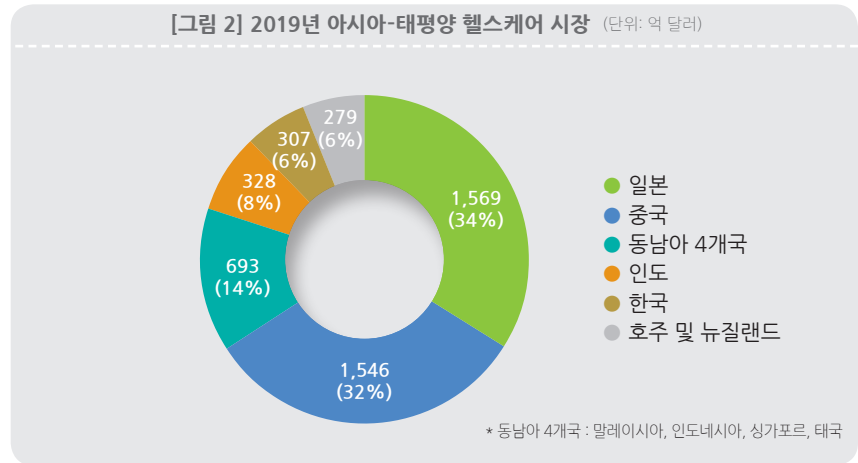
동남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2019년 기준 아세안의 GDP는 3조 2,348억 달러로 4.8%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6억 6,062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중위연령이 31.2세로 중국 (38.4세)과 한국 (43.7세), 일본 (48.4세)과 비교해 젊은 노동력과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⁴⁾ 경기회복력도 이런 성장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 -3.8%대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나 2021년에는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를 바탕으로 5.5 ~ 6.1%대로의 회복이 전망되고 있다.⁵⁾ 동남아시아는 국가 간 경제 규모나 상황이 각기 다르고 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나, 2015년 출범 후 동남아 시장 통합을 추진 중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⁶⁾ 와 2020년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⁷⁾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의 확대와 접근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 동남아시아 헬스케어 시장 규모

동남아시아 헬스케어 시장 또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지출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헬스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 약 7.2% 성장해 4,867억 달러에 이르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4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시장이 69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1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⁸⁾

[그림 2] 2019년 아시아-태평양 헬스케어 시장 (단위: 억 달러)



출처: Frost & Sullivan(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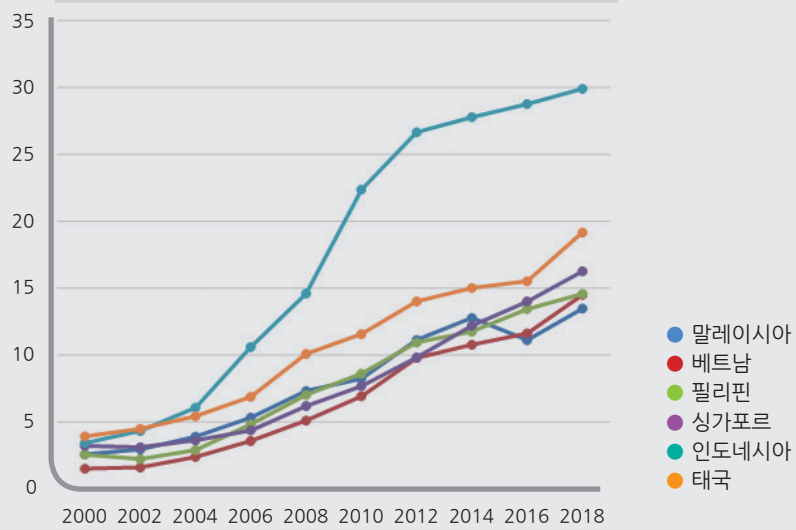
또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률은 9.3%로 인도 (13.9%)의 뒤를 이어 중국 (7%), 호주 및 뉴질랜드 (5.7%), 일본 (5.8%), 한국 (4.6%)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⁹⁾는 연평균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이 연평균 13.4%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가 12.8%, 필리핀이 10.1%로 뒤를 이었다. 경상의료비 규모는

5) 중앙시사매거진(2021)
 6)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및 외연 확장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의 한 축으로 동남아시아 유럽연합(EU)을 지향하는 역내 시장 통합을 추진 중.
 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2011년 아세안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총 15개국 간 협정으로 타결됨.
 8) Frost & Sullivan(2019)
 9)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의미함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가 299억 달러로 가장 크며 태국이 192억 달러, 싱가포르가 163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3]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경상의료비 (2010년 ~ 2018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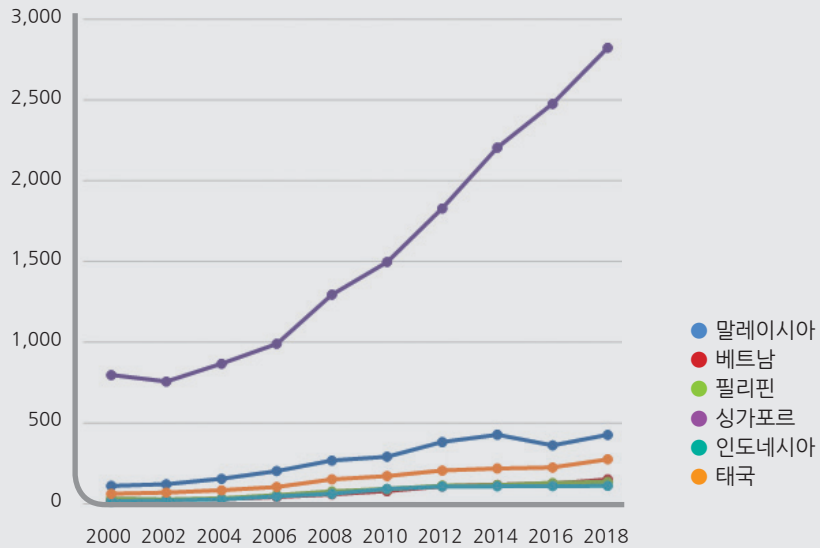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 증가율
말레이시아	2.6	2.9	3.9	5.3	7.3	8.2	11.1	12.8	11.1	13.5	9.6%
베트남	1.5	1.6	2.4	3.6	5.1	6.9	9.8	10.8	11.6	14.5	13.4%
필리핀	2.6	2.2	2.9	4.8	7.0	8.6	10.9	11.7	13.4	14.6	10.1%
싱가포르	3.2	3.1	3.6	4.4	6.2	7.7	9.8	12.2	14.0	16.3	9.4%
인도네시아	3.4	4.3	6.1	10.6	14.6	22.4	26.6	27.8	28.8	29.9	12.8%
태국	3.9	4.5	5.4	6.9	10.1	11.6	14.0	15.0	15.5	19.2	9.2%

출처: WHO

동기간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연평균 7% 이상 증가했다. 베트남이 연평균 12.3%, 인도네시아가 11.3%로 10% 이상의 매우 빠른 증가를 했다. 1인당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싱가포르가 2,824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427달러, 태국이 276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4]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1인당 경상의료비 (2010년 ~ 2018년) (단위: 달러)



출처: WHO

의료비 총지출이 큰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대규모 헬스케어 시장의 형성을, 1인당 의료비 지출이 큰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헬스케어 시장의 발달을 가능해볼 수 있다.

☑ 동남아시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동향

동남아시아의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1,098억 달러인 가운데 일본 (35.4%)과 중국 (33.1%)의 뒤를 이어 동남아시아 4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1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표 1] 동남아시아 주요국 의료기기 시장

구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 (억 달러)	'19년 규모 (추경)	15.5	15.3	6.52	11.44	16.35
	'24년 규모 (전망)	23.9	26.0	9.89	19.65	21.95
	'19-'24 연평균성장률	9.0%	11.2%	8.7%	11.4%	6.1%
세계시장 비중		0.4%	0.4%	0.2%	0.3%	0.4%
수입의존 비율		83.4%	89.7%	85.0%	94.5%	84.2%
수입시장 (억 달러)	'18년 규모	13	12	41	9.8	12
	'13-'18 연평균성장률	1.4%	11.1%	2.9%	8.6%	4.1%
수출시장 (억 달러)	'18년 규모	28	9.4	72	2.1	11
	'13-'18 연평균성장률	10.3%	13.8%	5.8%	-8.6%	5.7%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020)

동남아시아 주요국별 의료기기 시장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태국 (16.35억 달러)과 말레이시아 (15.5억 달러), 베트남 (15.3억 달러)이 15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억 달러 이상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2018년 동남아시아 주요국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 및 수출 (단위: 천 달러)

품목	구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의료용소모품	수입	275,794	141,635	708,647	152,050	301,595
	수출	1,124,065	324,093	1,046,179	28,373	547,507
	무역수지	848,271	182,458	337,532	-123,677	245,912
영상진단기기	수입	191,945	329,744	732,292	236,620	299,617
	수출	232,884	111,184	1,066,672	58,906	54,343
	무역수지	40,939	-218,560	334,380	-177,714	-245,274
치과기기	수입	35,161	62,166	61,187	25,854	80,304
	수출	4,093	47,708	37,856	1,167	6,879
	무역수지	-31,068	-14,458	-23,331	-24,687	-73,425
정형외과 보철기기	수입	55,336	118,179	309,757	25,150	121,855
	수출	73,008	16,802	1,087,840	895	7,245
	무역수지	17,672	-101,377	778,083	-24,255	-114,610
환자보조기	수입	234,016	209,155	827,643	95,555	94,918
	수출	503,488	124,223	2,219,857	15,313	32,195
	무역수지	269,472	-84,932	1,392,214	-80,242	-62,723

품목	구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기타	수입	460,193	326,281	1,459,932	442,934	336,285
	수출	831,809	312,873	1,765,675	103,264	418,825
	무역수지	371,616	-13,408	305,743	-339,670	82,540
전체	수입	1,252,445	1,187,160	4,099,458	978,163	1,234,574
	수출	2,769,347	936,883	7,224,079	207,918	1,066,994
	무역수지	1,516,902	-250,277	3,124,621	-770,245	-167,580

출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020)

말레이시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시장에 비해 수출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으며, 고무 기반 의료용소모품(수술용 장갑, 카테터 등)과 환자보조기, 기타 의료기기 덕분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약 200여 개의 의료장비 제조업체 중 현지 업체가 170여 개며, 대다수 현지 업체는 수술 및 의료용 장갑이나 기타 고무 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나머지가 수술장비 및 기구, 병원 가구 및 기본 의료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은 수입시장과 수출시장 모두 빠르게 성장했다. 자국 내 생산이 대부분 기본적인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의료용소모품에서만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시장이 수입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베트남에는 약 230개의 자국 및 외국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적은 인구로 인해 의료기기 시장 규모 (2018년 기준 6.52억 달러)가 크지 않으나 수입시장 (41억 달러)과 수출시장 (72억 달러)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형성돼 있다. 싱가포르의 수입과 수출 규모가 모두 크고 특히 수출시장의 성장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수출 지향적 의료기기 제조업의 발달과 성장세를 볼 수 있다. 치과기구를 제외한 품목들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수출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하며 수입의존 비율이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국내 생산이 기본적인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모든 품목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216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으며 선진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 제조업체는 수술 장갑이나 붕대, 정형외과 보조기구, 의료용 가구 등 기본적인 품목을 제조하고 있다.

태국은 세계적 의료관광지로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자국내 생산이 기본적인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의료용소모품과 기타 의료기기에서만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시장보다 수출시장의 성장속도가 빨라 의료기기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9년

기존 태국 내 531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있으며, 대부분 고무나 플라스틱 등 자국에서 원자재 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에는 의료기기 분야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세계 감염과 훈련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도 수년간 기업세금면제를 제공해 외국의 제조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안, 2016-2020”에서 의료기기 분야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생산부문의 하위영역으로 지정했으며, 자국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지 병원시설의 장비 및 도구 교체 시 최소한 30%를 현지 생산자가 납품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의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¹⁰⁾

10) Frost & Sullivan(2019); KOTRA(2019)

[표 3] 동남아시아 주요국 현지 주요 의료기기 제조업체

국가	기업명	내용
말레이시아	Top Glove	- 1991년 설립된 세계 최대 장갑 제조업체 (26%의 고무 장갑 시장점유율) - 외과용 및 시험용, 가정용 장갑
	Ideal Healthcare	- 1999년 설립된 Mutiara Medical의 후신으로 비뇨기과 및 마취, 호흡기 등 의료용 일회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
	Vigilenz	- 2002년 설립된 외과용 봉합사와 탈장용인공망(Hernia Mesh, 감염 및 상처 관리 제품 제조업체
	Straits Orthopaedics	- 2003년 설립된 정형외과 의료기기 위탁생산서비스(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s) 업체
베트남	VINAMED	- 1971년 설립된 다기능 응급 침대, 검사 테이블, 의료 주사 트롤리 등 병원용 침대 제조 업체 - 일본 Shimadzu와의 합작기업 Shimadzu Vietnam Medical Hi-Tech을 통해 엑스레이 및 초음파기기 생산 - 일본, 독일, 스위스, 러시아 등 다수 해외 제조사의 의료기기를 자국내 유통
	VIKOMED	- 2007년 설립된 Vietnam Laser Technology Center와 한국의 GEMSS Medical Systems 간 합작투자회사 - 디지털 X-ray, C-arm(이동형투시장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HIS(병원정보시스템) 등 베트남 최초 첨단의료기기 제조업체
	USM Healthcare Company	- 2012년 설립된 베트남 최초 심장혈관계 제품 생산기업 - 카테터, 스텐트 등 심혈관계 제품, 외과수술용 도구, 드레싱 패드, 가운 생산
	MEDEP	- 2015년 설립된 베트남 최초 안구 내 렌즈 및 외과용 봉합사 생산기업
싱가포르	ESCO	- 1978년 설립된 생명과학 도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 - 특히 의료기기 관련 배아 인큐베이터 등 체외수정 장비 제조
	Racer Technology	- 1988년 설립된 OEM 제조업체 - 의료용 장비 및 체외진단 장비 제조
인도네시아	PT Andini Sarana	- 1983년 설립된 치과용 장비와 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
	Shamrock	- 1989년 설립된 의료용 장갑 제조업체
	Dikamed	- 1999년 설립된 병원용 가구와 장비의 수입 및 제조 업체 - 갑중치료실, 이비인후과 및 안과용, 정형외과용 제품 제조
	PT Sinar Kencana Makmurjaya	- 2013년 설립된 의료용 수술장갑 OEM 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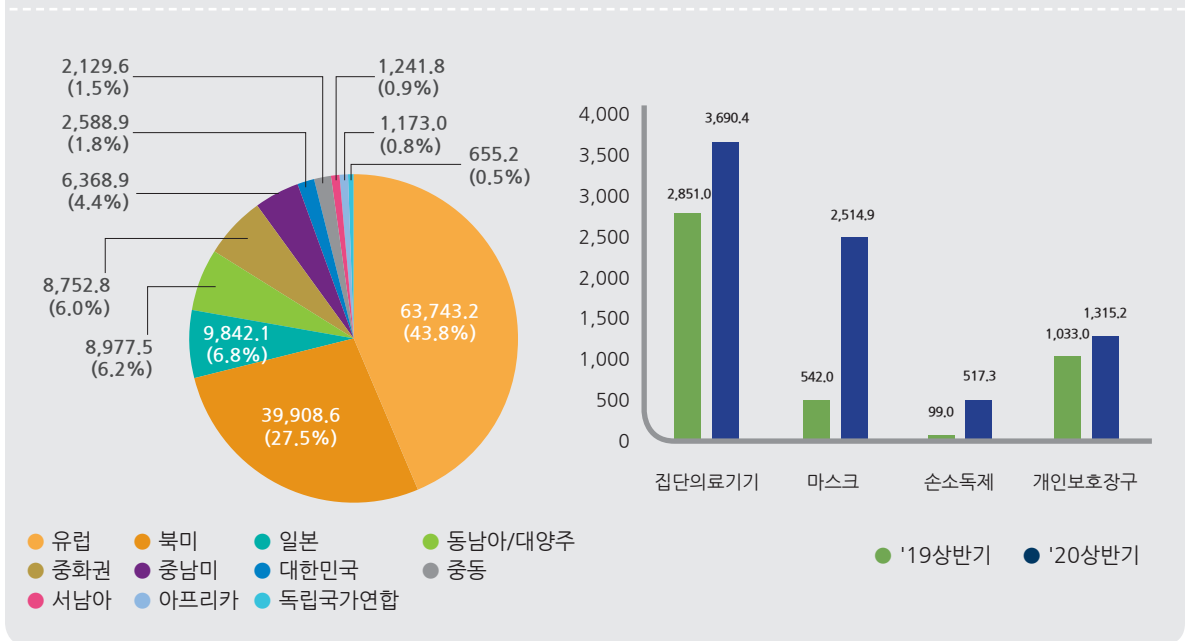
국가	기업명	내용
태국	Reckitt Benckiser Healthcare Manufacturing	- 1977년 설립된 소독제, 콘돔, 소화제, 진통제, 분유 생산업체
	Bever Medical Industry	- 1980년 설립된 정맥 및 동맥용 투여 제품 제조업체
	PHARMACARE LIMITED	- 1987년 설립된 외과용테이프, 반창고, 붕대, 거즈 제조업체
	Crosstech Diamond Tools	- 2001년 설립된 치과용 다이아몬드 버 제조업체 - FDA와 CE 인증 업체

출처: 우한나(2018), KOTRA(2019), KOTRA(2020a), KOTRA(2020b), KOTRA(2020c), 기사 및 기업 웹사이트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는 세계 다른 권역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 상반기 방역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2020년 상반기 전세계 방역물품 수입시장은 전년도 동기 대비 53.9% 증가해 1,453.8억 달러에 이른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남아/대양주 권역의 시장이 89.8억 달러 (전체의 6.2%)로 유럽 (637.4억 달러, 43.8%)과 북미 (399.1억 달러, 27.5%), 일본 (98.4억 달러, 6.8%)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를 형성했다. 진단 의료기기와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보호장구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4.0%와 422.5% 증가해 25억 1,490만 달러와 5억 1,730만 달러에 이르렀다.

11) KOTRA 의료서비스팀의 조사 결과이며 대상품목은 코로나19 진단의료기기(진단키트·검진장비 등), 마스크, 손소독제, 개인보호장구(방호복 장갑 의류용 고글 등), 기타 의료기기(인공호흡기·산소호흡기 등) 임

[그림 5] '20 상반기 권역별 방역물품 수입시장 비중 및 동남아/대양주 물품별 수입 증가 (단위: 백만 달러)



출처: KOTRA 의료서비스팀(2020)

동남아시아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라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유무역 협정의 확대와 관세장벽의 감소 등 시장 접근성의 지속적 개선이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국가 간 경제적 격차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의 발달 정도나 제도 및 유통 구조, 인증 및 등록 등 비관세 장벽에 차이가 있으므로 목표 시장에 맞는 개별적 전략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시장통합 노력으로 아세안의료기기통합규정(AMDD,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과 같은 통합규정의 마련과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동남아시아 헬스케어 수출 시장의 포괄적인 개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은 병원 등 의료인프라의 신설 및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동시에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추세에 맞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진단의료기기의 수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활로 개척과 진출 분야 확대를 위한 여건의 개선이 기대된다.

< 참고자료 >

1. 우한나, 2018, “인도네시아(Indonesia)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 보건산업브리프 Vol. 53.
2.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8-04.
3. 중앙시사매거진, 2021, “[2021 경제 대예측 | 아세안 신흥국 경제 고성장 성공할까?] 차이나 리스크의 대체 시장으로 떠올라,” 이코노미스트 1566호 (2021.01.04.).
4. 한-아세안센터, 2020, 「2019 ASEAN & Korea in Figures 한-아세안 통계집」,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5. 한-아세안센터, 2021, 「2020 ASEAN & Korea in Figures 한-아세안 통계집」,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6.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020, 「2020 동남아 의료기기시장 진출 정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7. Frost & Sullivan, 2019, Asia-Pacific Healthcare Industry Outlook, 2019.
8. KOTRA, 2019,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2-16)
9. KOTRA, 2020a,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지속 성장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2020-02-25)
10. KOTRA, 2020b, “성장이 기대되는 태국 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2020-11-24)
11. KOTRA, 2020c,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2020-11-30)
12. KOTRA 의료서비스팀, 2020, 「코로나19 방역물품 글로벌 시장동향 및 향후 수출방안」, KOTRA.

Writer

김지현 비티인사이트(B.T. Insight), 대표
e-mail: jkim@btinsight.co.kr

Reviewer

이강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부사장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1년 5월 | 발행인 : 고한승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10
ISSN 2508-6812